

웃음은 나누면 두 배, 눈물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스님이 강원도 오두막에 가신 뒤 광장에서 빈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혼자 사시는 스님이 걱정이 되어 ‘순전화가 하나 사드릴 테니까, 아플 때 전화나 하시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순전화냐며 순사래를 치시더군요. 스님은 제가 무례하게도 ‘외로우시면 결혼이라도 하시라’는 농담도 건넬 만큼 친근하게 보듬어주시던 정감어린 분이셨어요. 나이가 조금 조금씩 들면서 느끼는 데 사람답게 사는 일이, 일상에서 거지말 덜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식에 맞게 살고, 시대 흐름을 너무 무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냉소하거나, 애써 좋은 척하지도 않는 삶. 굳이 말하면 중도라든 중도이고, 자연스러움이라든 자연스러움인데, 그렇게 잘 정연되어 계시면서도 티를 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수준 높여서 다가서려 할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상대를 받아내는 부분이 훌륭하다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위낙 자연스럽게 대해주셔서, 스스럼없이 이어져 왔어요. 세상을 두루 꿰시는 어른이, 끈 짚은 제

말씀을 듣고도 ‘저 참, 그 이야기 좋네.’ 하시고, 제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야기 해도 웃으면서 잘 받아주셨어요. 단점도 많으세요. 틀린 꼴 못 보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 분이 위대한 성자이길 기대한 적도 없고, 외려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만한 분이 아니다.’ 그런 느낌보다는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가야

그만한 분 없다, 그런 느낌보다는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겠구나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에 큰 지표가 되는 어떤 그림이랄까,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스님이죠.” 답답하게 털어놓은 노일경 목사 눈매가 선선하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기 두 해 전, 노일경(65) 목사에게 FTA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농민을 생각한다면 FTA는 문제가 있다. 4대강 파헤치기

는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말씀했다.

“스님이 참 고마워요. 스님은 이 정권이 짜증나리 만큼 의도를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사회 문제에 거칠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FTA가 농민들에게 뭐가 좋겠느냐? 4대강 사업이 자연에게 좋을 일인가? 있겠느냐?’ 하나하나 되짚으시며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세요. 스님은 쉬운 말로 글을 쓰지만, 그런 글이 절대 평범한 사고만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글이 펄펄 살아 숨 쉬는 까닭은 복잡한 생각을 다 거치고, 많은 고민과 깨우침 끝에 나온 결정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아니지.’ 하는 말씀은 치열한 검증을 거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세계 말씀하든 부드럽게 말씀하든, 시냇물이 흐르듯이 사회에 건강한 생각이 계속 흐르게끔 늘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목회는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저는 중학교 시험을 마지막 보던 세대예요. 학교나 부모 제게 심어준 가치관은 ‘죽이라, 공부해서 성공하라!’였어요. 저는 그런 가치관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교회를 갔는데 이제껏 귀에 박히게 들어온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만에 핀 들꽃을 보라.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잡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

하늘을 나는 새나 들꽃은

수고도 않고 길잡도 않는다

나. 이런 생각이 답이라고 하는데도 있구나! 충격이 컸어요. 그랬어도 그냥 그뿐이었어요. 오래도록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는데... 제가 80년 5월 30일에 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처참했어요. 제 고향이 광주거든요. 돌아와서 어야 할 안식처인 고향이 다 부서져 내렸어요. 이 정권, 전두환 이 사람을 향한 분노에 앞서 사람이 있을

데가 없다는 허탈감. ‘아, 사는 일이 참 힘든 거구나. 산다는 게 뭘까?’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세상일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강요하는 질서나 가치에 의해 나란 존재는 그저 끌려갈 뿐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남북갈등 동시갈등으로 쪼개진 겨레가 또 참담한 역사를 기록하는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다 망가지고 처절하게 부서져 내린 고향 앞에서 저 또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노일경 목사는 이제 남은 일은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물질 가치는 얼마든지 추구하면 된다지만, 몰아타치는 정신 가치 공황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걸 떠나고 싶은 마음에 이르러서 해매는데, 누가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문익환 목사님 시집을 봤다. ‘개똥같은 내일이야 꿈 많은데 어려워 마라...’ 이렇게 시작되는 통일시였다. 그 시가 젊은 노일경 사유를 뒤흔들었다.

“큰 울림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랑도 하고 착하게 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은 삶이라고 가르쳐왔어요. 현실 갈등과 겨레가 겪어야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늘 현실과 동떨어져서 좋은 인간을 지향하는 도덕만 알리고 실제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5.18 같은 큰 재앙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을 했을까?’ 되돌아봤어요. ‘교회란 그냥 허울 좋은 장식에 불과할 뿐이구나.’ 실망하면서도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감감증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문익환 목사님 시를 보고 예수 삶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통일 문제를 신앙 과제로, 인생 과제로, 기독교인 과제로 여겨 하나님 뜻을 말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라면 참 멋지다. 돈이야 언제든지 약삭같이 벌려고 댈 수 있으니까. ‘존재 공허함을 뚫고 나가려면 신학을 한 번 해봐야겠다.’ 마음먹고는 한신대를 갔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한신대에서 교수로 계셨거든요.’ 5·18을 겪어 황폐해진 청년 노일경 가슴에 문익환 목사가 뿌린 씨가 삶을 뒤바꿨다.

“지나고 보니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삶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기존 종교에 등을 돌린 채, 아주 급진 혁명가가 되어 혁명에 가까운 삶에 뛰어들기도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혁명을 지향하는 신학자는 있어야 삶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는 더 어렵고, 감동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85년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7년여 동안 공무원 노릇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회과학도 공부했었어요. 딱히 방향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려던 길을 가다 멈추고 텨민, 돈 베풀는 일이나 직장생활 모두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런 노일경 목사에게 부인 김희희 여사가 말한다. “아무래도 당신은 교회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라고. 그때 노 목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예수를 떠올렸다.

“예수와 만남은 제겐 큰 분기점이었어요. 학교도 부모도 세상도 내게 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심어준 인물 예수.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뛰어 나를 설득하는 인물이라면 기꺼이 같이 가보자. 싶었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따뜻하게 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온열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본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복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김상복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웃나무 진액 참웃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웃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웃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웃물을 만들었습니다.

▶**웃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웃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웃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어요. 꽃이나 새, 바람 같은 자연과 통합되고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처럼 통합되는 사람이 대안처럼 느껴졌어요.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을 짓밟고 눌러서 뭘 어쩌자는 거지?' 그런 아니다 싶었어요. 저도 남한테 지기도 싫고, 부딪히면 이기고 싶은 사람이지만, '나한테 깨진 사람은 또 어떻게 되나?' 싶었고 저도 그렇게 깨지면 참 살맛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젊은 예수가 던진 말씀은 아주 서투른 설교들이었을 텐데, 저한테 큰 감동이었어요. 그 여진이 여태까지도 남아있어요. 그게 종교 원류라면 남을 깎아내리고, 적으로 돌리고, 증오하는 일

사람 예수를 쏘옥 빼담은 십자가

사람 냄새나는 도타운 예배 풍경

과는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92년도에 돌아왔죠." 결국 노일경 삶을 뿌리째 뒤흔든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였다. "만남은 눈뜸이다!"

교회로 돌아온 노일경 목사는 먼저 섬으로 가 전도사 생활을 했다. 그리고 도시로 돌아와 북부사 생활을 6년 한 뒤, 시골교회 목회를 맡아서 7년 동안 봉직했다.

"서울에 온지 한 10년쯤 됐어요. 돌아와서 뭐 특별하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 지향하려 들진 않았어요. 세상과 종교, 사회에 대해 환멸을 거진 뒀기나, 이제는 무엇인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보다 성실하고, 그게 작은 크든 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일구어나가려고 해요."

2월이 저물어 가는 어느 일요일, 노일경 목사가 목회를 하는 월곡교회를 찾았다. 차도 들어가지 않는 좁다란 골목 안에 있는 교회에 들어서면 예배당 앞 화단에 십자가가 땅에 뿌리 내리고 서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보통 교회 십자가는 지붕 위나 높달란 벽에 걸려있는데, 이렇게 땅을 디디고 서있는 '사람 예수'를 쏘옥 빼담은 십자가를 만나는 처음이다. 새롭다. 예수님을 가깝게 보는 느낌이다. 교회라고 해야 작은 건물 두 동이 전부다. 그 가운데 조금 큰 건물이 예배당이고, 그 곁에 딸린 두어 평 남짓한 작은 건물이 식당이다. 신도로 등록된 가정이 모두 50여 가구 남짓한 자그마한 교회다. 교회 안에 들어서니 마주치는 신도들마다 밝은 눈인사로 나그네를 맞는다. 그 살갑고 푸근함에 처음 간 곳이란 사실을 잊고 오래도록 친숙한 이웃을 만나는 느낌이 들었다. 단출하고 소담스런 성가대가 찬송을 이끄는 대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소박한 예배 풍경이 정겹고 도탑다.

월곡교회는 1955년 8월 15일에 시작해 57살이나 된 역사 깊은 교회로 처음부터 독재와 불의에 맞서 '빨갱이 교회'라고 낙인찍힐 만큼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왔다. 2005년 5월부터 목회를 이끄는 노일경 목사는 '신도들이 스스로 어깨동무하는 신앙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4년부터 '장동노인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이 교회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연지 올해로 19년째로, 2007년부터 공부방을 월곡지역아동센터로 바꾸어 노일경 목사 부인 김학희 여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안에 사는, 소득이 적거나 결혼 가정, 맞벌이 가정 자녀를 보듬어 안아 방과 후 공부방을 열고, 급식을 해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따



노일경 목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늘 노력 중이다.

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당 옆에 딸린 두어 평 남짓한 작은 식당이 바로 지역아동센터다. 어린이 책을 비치해 놓은 도서관이기도 한 이곳은 평일에는 어린이 놀이방이자 방과 후 공부방이고, 일요일에는 어린이 예배를 보는 작은 예배당으로 바뀐다. 또 이곳 어린이들은 모두 큰 예배당을 피아노교실이라고 부르는데 예배당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 예배당이고 지역아동센터고 모두 변신 잘하는 트랜스포머다. 어린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틈틈이 배우고 갈고 닦은 솜씨를 해마다 지역아동센터 생일을 맞아, 서툰 서툰 대로 잘하면 잘 하는 대로 솜씨 자랑을 한다. 올해로 열아홉 돌을 맞은 월곡지역아동센터 생일 잔치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은 입 모아 '우리는 친구'를 불렀다.

웃음을 나누면 두 배 되고
눈물을 나누면 절반되듯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는 하나, 하나-

너와 나 서로를 이해하고
너와 나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는 하나, 하나- 친구

친구들이 손에 손 마주잡고
한 소리로 높은 꿈을 노래하자
친구들이 불타는 태양을 향해
파도처럼 춤을 추며 달려
가자

어두운 바다의 등대처럼
광막한 사막의 생수처럼
희망으로 빛나는 우리는
하나, 하나- 친구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백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소리를 듣고 깨달아



깨달음의 방법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대상을 보고 깨닫는 것이요 또 하나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고 하겠다. 부처님의 경우 별이란 대상을 보고 기연을 만나 깨달음을 얻었다. 역대 조사들은 다수가 소리를 통해 기연을 만났다.

물론 예외가 있기도 하다. 고려말 나옹(懶翁) 선사는 회암사에서 정진 하다가 매화꽃이 핀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서산 스님은 남원 어느 마을을 지나며 닭 울음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깨닫는 것에는 처소가 한정돼 있지 않음이 분명해진다.

깨치는 도량이란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고 발 닿는 곳이면 수행도량이 된다. 산에서 수행했다고 해서 산기도 했다고 한정할 수 없는 일이고, 강가에서 수행했다 해서 용왕기도 했다고 한정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니련선하(尼連禪河)에서 수행한 부처님은 분명 용왕기도 한 것이 아니지 않나.

도량(道場)은 깨달음을 얻 장소이고, 도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범어로 Buddhagayāra

시를 보면,

발백심비백 髮白心非白
머리 희어도 마음은 청춘이라

고인증루에 古人曾漏洩
일찍이 고인이 말했다고 하네

금문일계성 金門一鷄聲
닭 울음소리 한 번 듣고

장부능사필 丈夫能事畢
대장부가 할 일을 다 마쳤다네

서산 스님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예순 아홉의 노구를 이끌고 승의병(僧義兵)을 일으켜 구국의 선봉에 섰다. 이 모습을 보고 명(明)나라 이여송(李如松)은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공명을 마다 하고 도만 닦더니 나랏일 위급하니 큰 스님 나오셨다네.

도량이 청정해야 삼보전륜이 그 곳에 깃든다고 했다. 우리 주변이 청정하니 살펴보자.

내 신념 지나치면 이웃에게는 큰 독
말에는 신뢰, 행동에는 양보 갖춰야

고 한다. 부처님과 많은 다른 부처님들이 도를 증득한 성스러운 곳으로 비하루즈에 있는 가야라는 도시를 말한다. 또 하나는 prithiviya manḍala이다. prithivi는 '지구' 혹은 '넓은 세상' 이고 maṇḍala는 공양을 지을 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밥물'이란 뜻이 있고 '장식' 혹은 '장엄'을 나타내는 말이다. 도량은 우리가 숨 쉬고 걷고 팔을 펴는 공간으로 그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공간이다. 작열하는 태양과 두렵게 때오른 보름달 속에도 기원이 깃들어 있으니 도량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서산 스님은 9세에 어머니를 잃고 10세에 아버지를 여의어 의지처를 잃고 말았다. 그러던 스님은 글 재주가 비상하고 총명함이 뛰어났고, 이를 알아본 고을의 원님이 데려다가 성균관에 넣어 주었다. 그 후 스승을 따라 전라도로 나섰던 서산 스님은 스승이 부모님 상을 당해 한양으로 올라가자 글방 친구들과 같이 산천구경을 나섰다. 그 길로 쌍계사 승인(崇仁) 스님을 만나 불경을 배우고 부용영관(芙蓉靈觀) 선사에게서 선을 익혔다. 이후 서산 스님은 낮 닭우는 소리를 듣고 대오했다. 당시 스님이 읊은

우리는 혹여 신념의 노예가 아닌가.

신념이 지나치면 이웃에게는 큰 독이 될 수 있다. 신념은 여백을 지닐 여유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신뢰의 결핍이다.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 행동에는 양보가 결핍되어 있다. 언어에는 겸양이 결핍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 가식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루엣 마냥 윤곽만 드러내고 이목구비는 묻히고 말았다.

우리가 버려져버리는 것은 육신의 덧 때문이 아니고 번뇌의 덧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치유방법은 도처에 있다. 하찮은 소리에도 도의 이치가 깃들어 있고 삼라만상 두두물물에도 만연해 있다. 산야에 나뉘는 불꽃없는 지질벽력 가운데에도 배우고 익힐 것들이 있으리라. 삼복에 갈증이 심해도 감시지 않게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시는 지혜를 익혔다. 독자는 꽃이 지는 소리에 밤을 지새며 뒤척인 적이 있는가.

동국대 선학과 교수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베스트셀러 진입!

白超律曆學堂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가법고 설치가능, 동간격·규격원조

원터치 고리용, (인등) 소원성취 및 시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정품) 220V용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 (정품)

-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당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